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7호 2019년 5월 8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영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 극동 항만 물동량, 이미 철도 운송 한계량의 30-40% 초과

이슈페이퍼(p.5)

-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신북방 정책 시사점

주요 동향(p.13)

• 동부(p.13)

- 러 즈베즈다 조선소, 한국 조선기업과 실질 협력확대 전망
- 캄차트카, 북극항로 화물 처리 위한 복합단지 건설

• 중부(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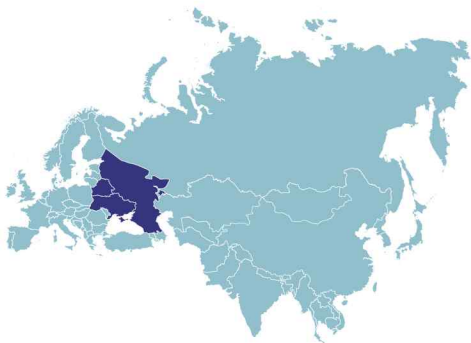
- 유라시아개발은행, 카자흐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재정 지원
- 조지아-카자흐,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 회랑' 관련 양해각서 체결

• 서부(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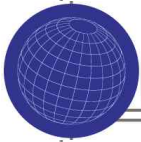
- 아제르바이잔 바쿠항, 유럽 최대 물류허브와 협력 착수

주요통계(p.23)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주요 수출입품목 구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통계로 보는 북방

■ 극동 항만 물동량, 이미 철도 운송 한계량의 30-40% 초과

- 극동지역 수출 활성화의 주요 방해요인은 철도 수송 능력의 한계량을 초과했다는 점임
 - 극동지역의 수출 기업과 항만은 현재 물동량의 연 30~40% 이상까지 증가시킬 준비가 끝났다고 물류 기업 <보스톡 1520>의 대표가 지난 4월 모스크바 산업 회의에서 밝힘
 - TSR과 BAM철도의 일부 확장 공사 이 후에도 여전히 철도 물동량은 수출량 증가 속도 및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의 화물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작년 극동항만 수출 화물의 국내 생산량은 철도 수송량 한계의 20%를 초과했고, 이에 화차 적재량 초과, 운행 열차 수 확대, 창고용 화차 이용 등의 방법을 동원해 약 천만 톤의 물동량을 추가 처리했음
 - 현재 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라스노다르스크 지역 철도 운송과 쿠즈네츠 석탄 채굴장으로부터의 운송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컨테이너 관리 부족에 있음
 - 지난 3월 러시아 생산업체들은 극동항만으로 가는 철도 화물량을 10% 이상 줄여야 했고, 유럽지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항 화물까지 철도로 인해 감소된다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냄
- 2030년까지 극동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
 - 금년 1분기 극동지역에서 처리된 석탄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621만 톤이었으며, 작년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이 2억 톤을 넘어서면서 러시아 항만 개발 전략의 예상을 2년 앞서 초과함
 - 극동해양연구소(ДНИИМФ)와 극동연방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극동 지역 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하면서, 러시아 전체 증가량인 3.8%를 상회했음



- 극동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해 러시아 철도청은 2019년 극동항만을 향하는 철도 병목 구간 확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대 1.2%의 석탄 운송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20년~2021년에 TSR과 BAM철도의 현대화 작업이 완료되면 극동항만의 수출 화물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올해 1~4월 RZD 물동량은 총 4억 2,58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실제로 올해 1~4월 석탄 처리량은 1억 2,80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철 스크랩 처리량이 10.3% 증가해 철도 병목 현상 심화 가능성이 커짐

상품명	화물량 (단위: 백만 톤)	작년 동기 대비 (단위:%)
석탄	128	+1.2
코크스	3.8	+3.4
석유 및 석유제품	79.5	-0.1
철광석, 망간	39.4	+6.8
비철금속	25.7	-2.8
철 스크랩	4.2	+10.3
화학 및 비료제품	20.3	+0.4
시멘트	6.97	+5
임산물	14.8	-4.3
곡물	7.4	-24.4
건설 자재	37.96	-5.1
유황 원료 광석	6.26	-2.9
소다	8.85	-2.6
산업 원료 및 재료	11.1	-0.4



참고자료 :

http://fama.press/ekonomika/moschnosti_dalnevostochnyh_portov_na_30-40_prevyshajut_vozmozhnosti_rzhd_%E2%80%9393_ekspert(검색일: 2019년 5월 6일)

<https://profile.ru/news/dk/vp/vostochnyj-port-narashhivaet-obemy-perevarki-uglya-137105/>(검색일: 2019년 5월 6일)

<https://news.ati.su/news/2019/04/04/k-2030-godu-dalnevostochnye-porty-dolzhen-udvoit-gruzooborot-104716/>(검색일: 2019년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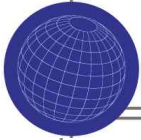
<http://infranews.ru/logistika/54143-pogruzka-na-seti-rzhd-za-4-mesyaca-2019-goda-sostavila-4258-mln-tonn/>(검색일: 2019년 5월 7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남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neba95@naver.com



이슈페이퍼

■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신북방 정책 시사점

-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행정수도 지정 후 첫 정상회담
 - 북러 정상회담이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행정수도 지정 후 최초로 러시아 대통령과 외국 정상과의 회담으로 개최됨
 -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 일행(약 230명)은 특별열차 편으로 4월 24일 오후 6시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 도착 후 곧바로 루스키섬 극동연방대 숙소로 이동함
 - * 4월 24일 오전 11시 경 김위원장 특별열차의 핫산역 도착 시, 러시아측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권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제마코 연해주지사,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대사 등이 영접함
 - 푸틴 대통령은 국내 일정으로 회담 당일인 4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극동연방대 부근에 헬기 편으로 도착해 전용차로 극동연방대로 이동, 회담장에 도착함
 - 정상회담은 4월 25일 오후 2시 10분 경 시작하여 단독회담, 확대회담, 만찬 순으로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됨
- 11년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확대회담 및 만찬 순으로 진행
 - 동 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북러 간 8년 만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음
 - 단독회담이 끝나고 확대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양 정상은 단독회담의 결과와 확대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기자들에게 밝힘
 - *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극동연방대 내 회담장에서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약 25분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러 푸틴대통령은 “김위원장과 한반도 상황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전략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함



- 확대회담에는 북한측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배석함
- 러시아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예브게니 디트리히 교통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권개발장관, 알렉산더 마체고라 주북한 대사, 올렉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아나톨리 야노프스키 에너지부 차관,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배석함

■ 비핵화 방안과 경협을 두 축으로 정상회담 진행

- 금번 북러 정상회담 이전 일반의 관측대로¹⁾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북러 간 경협 활성화 방안을 축으로 진행됨
- 비핵화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우선 비핵화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체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이란 전제 조건을 달고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 경제 분야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 대북제재의 완화 문제 △ 국제 제재 하의 북한 노동자의 처리 문제 등이 언급됐음을 밝힘

■ 북러 정상회담의 경제 이슈와 협력 현안

- 정상회담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 있었으며, 만찬을 포함한 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양 정상에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없이 회담장을 떠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그럼에도 경협 관련 세부 내용은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한 러측의 인사를 통해 유추가 가능함
-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극동 개발을 관장하는 대통령의 극동 담당 전권 대표로서, 극동 개발의 국제 협력 차원 프로젝트 진행에 개입하고 있음

1) 이즈베스차는 4월 22일 보도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이 4월 25일 루스키섬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함. 한편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를 인용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이슈 및 양자 관계, 양국의 공동 이해와 상호 신뢰 구축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타스통신 인용 보도).



-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러 외교 사무를 대표하며, 대북 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 사항은 대부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음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력의 본국 송환 업무를 관할함
- 예브게니 디트리히 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항만 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총괄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음
- 올렉 벨로제로프는 푸틴 대통령이 신임하는 최측근 인물이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네트워크의 운영과 발전을 관할하는 러시아철도공사의 사장임
 - *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핫산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오는 데 이용한 철도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지선인 극동철도임
- 아나톨리 야노프스키 에너지부 차관은 러시아 석유, 가스 산업 및 석탄 산업의 주무 부처 차관으로서 국제 제재 하에서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에너지 원 및 석탄의 북한을 통한 해외 수출에 관여함
- 이렇게 볼 때 4월 25일 정상회담(단독 및 확대)에서는 회담 종료 후 공개된 것 이상으로 양자 무역 일반 및 교통·에너지 및 기타 산업 협력 관련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북러 경험 의제1: 무역 확대 방안

- 양국 경제 의제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는 최근 무역량 확대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높음
- 북러 양자 간 무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최근 급격히 축소되어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56%가 감소한 3,400만 달러를 기록함²⁾
- 북러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와 같은 무역액 격감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되어 왔으며, 이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 * 2019년 1월 3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알렉산드르 크루치코프 극동개발부(현재 '극동북극권 개발부'로 개편) 차관과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을 대표로 한 북러 간 실무협상이 개최되

2) 코메르상트 4월 23일 자 보도 참조("Остров — Русский, вожь — корейский Ким Чен Ын прибу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72 от 23.04.2019, стр. 1).



어, 북러 접경지역의 핫산-두만강역을 잇는 도로교량의 건설과 함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평양을 잇는 전자상거래 장터의 개설(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상품관 개설)을 논의함

* 지난 3월 4~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무역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됨. 코메르상트의 보도에 의하면 무역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은행 거래 없는 물물교환 형식 및 공동 결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물품 구입 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현물 상환’ 방식이 검토됨

■ 북러 경협 의제2: 러시아 내 북한 인력의 처리 문제

- 2017년까지 러시아 내 북한 인력은 3만8천 명 수준이었으며,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동년 초 3만4천 명으로, 연말에 다시 2만 명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9년 4월 현재 1만 명 이하로 떨어짐
- 북한 인력은 북한에게는 부족한 외화 조달을 가능케 하는 한편, 러시아에게 극동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극동러의 건설 현장 등에 양질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북러 상호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경제협력 주요 이슈 중 하나임
- 2017년 12월 22일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내 (유엔 회원국 내) 북한 인력의 귀국 조치’가 추가됨으로써 대북 제재 자체가 완화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오는 12월 21일까지 러시아 내 북한 인력은 전원 철수해야 함
- 4월 25일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 인력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제 제재와) 모순되지 않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모종의 해결책이 논의되었음을 시사함
-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 인력의 잔류에 대해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함

■ 북러 경협 의제3: 두만강 도로교량 건설 등 초국경 교통인프라 개선

- 북러 간 두만강 도로교량(‘신 우정의 다리’) 건설은 북한측의 요청에 의해 2015년에 논의되기 시작함
 - * 현재까지 북러 국경에는 핫산역-두만강역을 잇는 철도 교량만 있음
 - * 북한은 2018년 3월 제8차 북러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두만강 도로교량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



- 두만강 도로교량의 건설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 언론이나 전문가의 반응은 2018년 중반까지도 미온적이거나 찬반이 엇갈렸으며, 그 이유는 “도로 이용 화물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량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었음³⁾
- 2019년 들어와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난 1월 3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북러 정부 간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매우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짐
- 연해주 주간 신문인 콘쿠렌트 2019년 2월 5~11자 보도에 따르면 동년 1월 3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북러 정부 간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도로교량 건설에 러시아 표준 적용, 연계 도로의 건설, 동 도로상의 국경통과소 건축 등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함
- 또한 동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은 2월 15일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지사와 조석철 북한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 간 협의, 3월 모스크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재확인됨
- 극동 지역 인터넷 매체 이스트러시아는 지난 3월 23일 러시아 연방상원 의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와 함께 두만강 도로교량 건설을 협의했으며, 2019년 12월까지 교량 건설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음을 보도함
-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두만강 도로교량 건설사업은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됐을 개연성이 있음

■ 북러 경협 의제4: 철도 및 가스관 사업 등

-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러 철도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도 논의했음
-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로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인내력을 갖고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철도 연결 시도’란 2018년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러시아측은 교통부 차관, 주한국 및 주북한 대사, 그리고 러시아철도공사의 평양 대표가 참석한 바 있음⁴⁾

3) “Выгодно ИЛИ пагбно,” 30 октября - 5 ноября г. Конкурент No. 41 및 현지 러시아 전문가 면담 내용.

4) 주한 러시아 대사관 보도자료(공식 트위터) 참조. 당시 행사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함.



■ 북러 정상회담의 신북방 정책 시사점

- 북러 경제협력, 남북러 경제협력 등의 진전 속도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국제 사회 협력에 달렸으므로 속단할 수 없음
- 그러나 금번 북러 정상회담은 다음의 이유에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북러 간 두만강 도로교량의 러시아 표준에 의한 건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프로젝트 실현 시 3국 간 협력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러시아 표준에 의한 건설'이란 러시아측이 도로교량을 주도하는 것을 뜻하며, 간접적으로 러시아측 자금에 의한 건설을 시사함(한편 북러는 두만강 교량건설 방식에 대해 △ 기존 철교의 재활용 △ 신규 도로교량 건설 △ 부표교 설치 등을 검토해왔음)⁵⁾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8년 6월 신북방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결정하면서 나진-두만강-하산으로 이어지는 물류루트를 '소다자 초국경 협력'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바 있으며, 이는 2019년 2월 동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됨⁶⁾
 - * 두만강 초국경 3각 협력(소다자 협력)의 한 방안으로, 두만강 도로교량은 북러 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되, 북한측 구간의 연계 도로 건설은 남북 경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음
- 무역 확대를 위한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잇는 전자상거래 장터 개설 이슈가 현안으로 올라간 것도 주목할만함
 - * 전자상거래 장터 개설은 거래 방식은 전자상거래이나 실제 수출입은 블라디보스토크 상품관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보임
 - *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상품관 개설 시, 나선특구에서 남북 경험 방식에 의한 경공업 단지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동 상품관을 통해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중단철도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 의지를 재확인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에 화답하는 측면이 있음
 - *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는 나진-하산간 철도의 복선화 및 러시아 연해주 내 하산-블라디보스토크 구간 운영의 효율화(현재에는 하산에서 우수리스크까지 북상해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남행) 등을 검토할 수 있음

5) 최장호, 이정균, "2018년 북한의 對중국,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평가 및 2019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19 1월호, p.48 참조.

6)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관계부처합동,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록 참조: http://www.bukbang.go.kr/bukbang/info_data/references/?boardId=bbs_000000000000013&mode=view&cntId=46&category=%EC%A0%95%EC%B1%85&pagIdx=



- 푸틴 대통령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언급도 현재의 대북, 대러 국제 제재 하에서는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협력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 북한 지도부의 3각 협력 대상지 답사경험도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성

-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과정에서 북 김정은 위원장이 신북방 정책 및 ‘9개 다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지이자 극동지역 핵심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직접 둘러본 것도 향후 신북방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지도부를 태운 특별열차가 4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및 4월 26일 귀환 시 이용한 철도 노선(나진-하산-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은 바로 교통·물류 분야 극동러 초국경 협력의 가장 중요한 구간 중 하나로서 일부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프리모리예2’ 구간과 중복됨
 - *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운송회랑은 러시아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통한 극동개발을 달성하려는 계획의 핵심으로, 2025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의 주요 항만과 중국 쑤이펀허(프리모리예1) 및 훈춘(프리모리예2) 연결성 개선을 위해 운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국가계획임
-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후 북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량은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러시아 극동개발의 주요 상징인 금각교와 루스키대교를 직접 이용함
- 또한 금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가 이용한 숙소와 정상회담장은 2012년 APEC 정상회담과 2015년부터는 동방경제포럼 장소로 쓰인 국제적 규모의 극동연방대 캠퍼스 내에 위치함
-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북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가 극동의 행정수도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극동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현황을 보고받거나 피부로 실감했다고 할 수 있음
 - *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국경 부근에서 처음 통과하는 지점인 북러 또는 잠재적인 남북러 경협 현장은 정상회담에서 협의됐을 것이 분명한 두만강 도로교량 건설 예정지점과, 지난 수년간 남북러 3각 물류시범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던 나진항 3호 부두라고 할 수 있음
 - *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나진항 공동개발’은 또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선정한 ‘초국경 경제협력’ 패키지의 주요 구성 요소이기도 함
-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은 선대의 유혼 사업으로 1990년대 개발계획 수립 초기에는 인구 1백만 명 규모의 국제적인 중계무역 기지로 설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15년의 업데이트된 종합개발계획 하에서도 해상으로 러시아측 블라디보



스토크항, 나훗카항으로 연결되는 극동러 항만 인프라 연결의 주요 구성요소임

-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현장을 직접 둘러본 만큼, 북한에서도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 대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3국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https://news.v.daum.net/v/20190424122509574>(검색일: 2019년 5월 7일)

http://www.bukbang.go.kr/bukbang/info_data/references/?boardId=bbs_0000000000000013&mode=view&cntId=46&category=%EC%A0%95%EC%B1%85&pageIdx=(검색일: 2019년 5월 7일)

최장호, 이정균, “2018년 북한의 對중국,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평가 및 2019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19 1월호.

“Выгодно Или пагубно,” 30 октября - 5 ноября г. Конкурент №41

<https://www.eastrussia.ru/news/chleny-sovfeda-obsudili-v-kndr-stroitelstvo-mosta-na-granitse-s-primorem/>(검색일: 2019. 4월 24일)

<http://tass.com/pressreview>(검색일: 2019. 4월 24일)

Russian Embassy in Korea(Официальный твиттер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주한러시아대사관 트위터). 2018. 12. 27.

<https://www.kommersant.ru/doc/3953148>(검색일: 2019. 4월 24일)

박성준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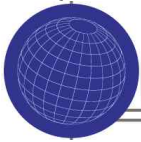
sjpark@kmi.re.kr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



동부권역 주요 동향

■ 러 즈베즈다 조선소, 한국 조선기업과 실질 협력확대 전망

- 극동 최대 조선소인 즈베즈다 조선소가 한국 조선기업들과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러시아 조선소는 앞으로 해외로부터 일부 건조된 선박(블록)을 수입해 마무리 공정만을 거치면 자국산 생산선박으로 인정돼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기존 법령은 선박의 선체조립도장 등 일련의 제작과정이 러시아에서만 이뤄져야만 자국산 선박으로 인정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일탱커 및 가스운반선 등 일부 선박들에 한해 블록형태로 외국으로부터 선체일부를 공급받아 조립해도 수입대체재로 인정, 자국산 건조선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임
- 이에 국가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소가 이 같은 개정법령에 실질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다
 -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전문적으로 건조되는 오일탱커와 가스운반선 수혜 대상 선박으로서 조선소 내부적으로 한국에서 블록을 공급받는다라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후문임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조선소들이 많지만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근접한 즈베즈다 조선소가 신규법령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신규법령은 결국 러시아 국내제품을 지원하고 외국기업과의 협력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의 맥락에서 생산을 현지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련의 조치들은 자국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차원이라고 밝힘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즈베즈다 조선소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0~2023년 간 약 535억 루블(약 9,200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추진 중임
 - 관계자에 따르면 동 기금은 앞으로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위한 선박건조에 집행될 예정이며, 약 15척의 가스운반선과 3척의 오일 탱커를 건조할 계획임
- 한편 연해주 발쇼이 카멘 지역에서 중장기 현대화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티와 가즈프롬뱅크가 콘소시엄으로 운영 중임

■ 참고자료 : <https://primamedia.ru/news/805064/?from=7>(검색일: 2019년 5월 6일)

전명수 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캄차트카, 북극항로 화물 처리 위한 복합단지 건설

- ‘터미널 세로그라즈카’사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에 선박 관리와 북극항로 냉장 및 일반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복합 단지를 건설할 예정임
 - 본 프로젝트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며 투자금액은 약 22억 루블이며 최대 약 3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

수산업 단지가 건설될 항만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933/>(검색일: 2019년 5월 6일)

- 본 수산업 단지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 톤을 처리해 캄차트카에서 두 번째로 처리물동량이 많은 항만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같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현대화 및 자동화된 냉장·냉동 단지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 중 냉장·냉동 화물 수용량은 약 2만 톤임
 - 또한 본 프로젝트에는 특수장비와 최대 길이 약 522m, 깊이 14m의 선석 건설 및 재건 등이 포함됨
- ‘터미널 세로그라즈카’사의 블라지미르 발쎄르 대표는 현재 개발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 냉동 컨테이너 기술 및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단지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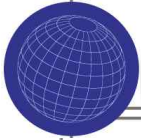
고 함

- 블라지미르 발제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러시아 시장에 수산물 공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함
- 또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함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933/>(검색일: 2019년 5월 6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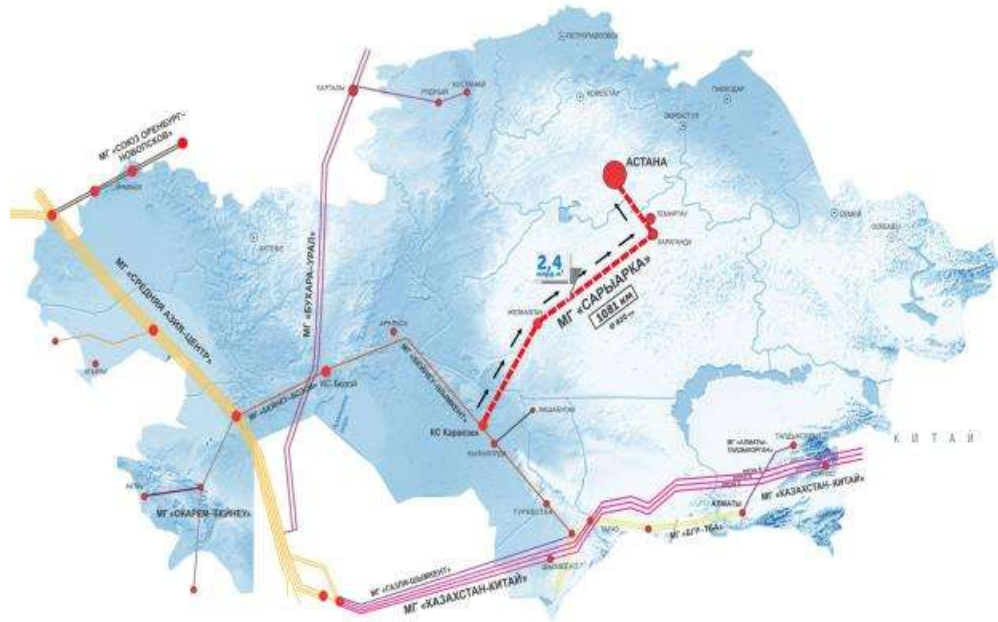
중부권역 주요 동향

■ 유라시아개발은행, 카자흐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재정 지원

- 유라시아개발은행(EDB·Eurasian Development Bank)은 카자흐스탄 사르아르카(Saryarka)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로서 약 1,020억 텡게(KZT)·2억6,700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함
 - 지난 4월 24일, 러시아 코나코보(Konakovo) 시에서 제2차 유라시아 미디어 대회(Congress of Eurasian Media)가 진행되었음
 - 해당 대회에 참석한 EDB 소속 안드레이 벨리아니노프(Andrei Belianinov) 의원은 사르아르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카자흐스탄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과 함께 투자를 할 계획이며, 2억6,700만 달러 상당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 언급함
 - 사르아르카 가스 파이프라인의 연장은 총 1,061.3km로, 건설에는 약 6억9,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사르아르카 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4단계의 건설 공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첫 번째 건설 노선은 주요 간선으로, 카자흐스탄 남부 크즐오르다(Kyzylorda) 시를 시작점으로 해 북쪽으로 제즈카즈간(Zhezkazgan) 시, 이어 중부 카라간다(Karaganda) 시로 연결되어 수도 누르술탄(Nur Sultan) 시까지 이어지는 루트임
 - 두 번째 단계는 수도 누르술탄 시로부터 북부 콕셰타우(Kokshetau) 시까지, 이후 세 번째 단계는 카자흐스탄 최북단에 위치한 페트로파블(Petropavl)까지의 연장임
 - 이후 최종단계에서는 테므르타우(Temirtau) 시와 제즈카즈간 시에 가스압축장(Compressor stations natural gas)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사르아르카 가스 파이프라인의 노선



자료: The Astana Times (검색일: 2019년 5월 6일)

- 사르아르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EDB 및 카자흐스탄 국영 펀드 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될 예정임
 - 아스타나가스(AstanaGaz) 사는 삼룩 카즈나(Samruk Kazyna) 국부펀드(SWF) 및 바이테렉 국영 관리 지주(Baiterek National Management Holding)를 통해 약 2억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아울러 카자흐스탄 통합누적연금기금(United Accumulative Pension Fund)에서는 약 2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알려짐

■ 참고자료 : THE ASTANA TIMES (검색일: 2019년 5월 6일)

오상호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조지아·카자흐,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 회랑’ 관련 양해각서 체결

- 4월 23일 카자흐스탄에서 제 10회 조지아-카자흐스탄 정부 간 경제 협력회의(10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eorgia and Kazakhstan)가 개최되었음
 - 조지아 측에서는 나티아 투르나바(Natia Turnava)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이, 카자흐 측에서는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산업인프라부 장관이 참석했음
 -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별칭 ‘중앙 회랑’·Middle Corridor)은 중국-카스피해 연안국(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흑해 연안국(조지아, 터키)-서유럽을 잇는 대규모 물류허브 프로젝트로 구상되었음. 이 루트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음
 - 양측은 중앙 회랑의 개념과 통합 요금체계 개발을 포함한 전략적인 이슈들을 논의했으며, 또한 흑해와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해운 루트 강화 방안에 공감했음
 - 투르나바 장관은 “중국과 유럽의 물동량을 중앙 회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지아-카자흐스탄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음

제 10회 조지아-카자흐 정부 간 경제협력회의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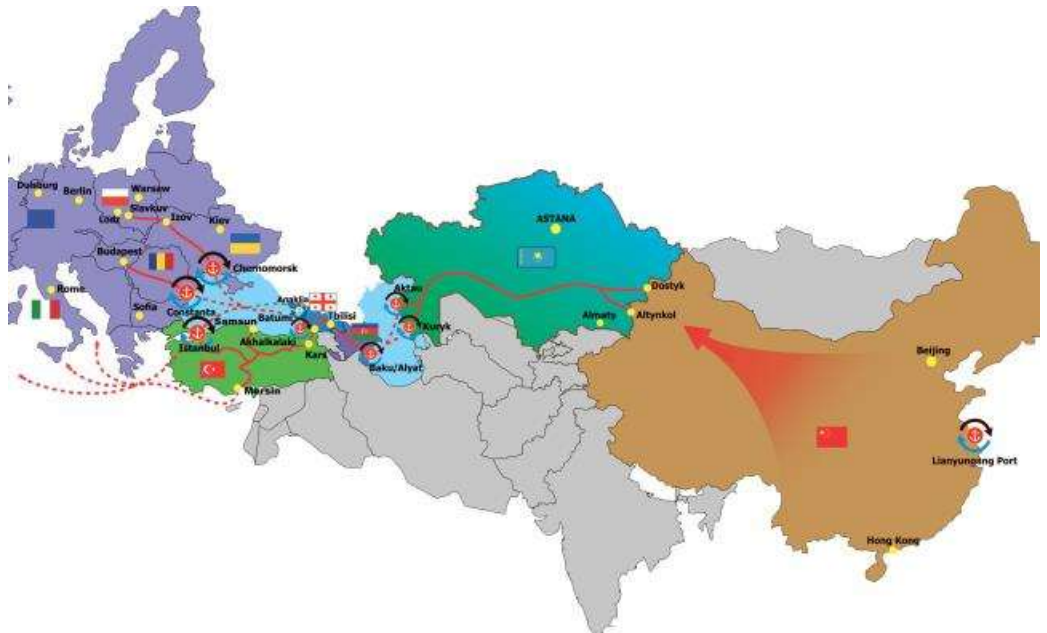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rgia Twitter, 2019

- 또한 투르나바 장관은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조지아-카자흐 양국 경제 및 문화 교류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음
 - 카자흐 내에서 활동 중인 조지아인 사업가들과의 미팅에서는 물류 인프라, 여행 시설, 의료센터, 호텔 체인 분야에서 카자흐 자본의 조지아 유치 방안이 논의되

었음

- 아울러 카자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지아 문화 소개와 와인을 비롯한 조지아 산 식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원 설립도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음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자료: Middle Corridor <http://titr.kz/en> 2019

참고자료 : <http://agenda.ge/en/news/2019/1102> 2019(검색일: 2019년 4월 24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 아제르바이잔 바쿠항, 유럽 최대 물류허브와 협력 착수

- 바쿠 국제 해양(Baku International Marine Trade Port) 지도부는 네덜란드 림뷔르흐(Limburg) 주 펜로(Venlo) 시에서 네덜란드 측 대표단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음
 - 펜로를 비롯한 림뷔르흐 지역은 예로부터 네덜란드 및 유럽 최대의 항만물류 허브로 자리매김 해왔음. 양해각서 체결 주체는 바쿠항 지도부, 림뷔르흐 주정부와 네덜란드 물류업체 대표단이었음
 - Cabooter Group, SMART Logistics Centre, 림뷔르흐 개발투자회사, Greenport Venlo, KLG Europe, 북림뷔르흐 개발위원회, 아제르바이잔-네덜란드 비즈니스 허브 등을 비롯한 기업체 대표단 외에도 폰티스 응용과학 대학교(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도 참여했음

아제르바이잔 바쿠항 - 네덜란드 대표단 MOU 체결식



자료: Denizhaber.az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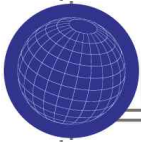


- 탈레흐 지야도프(Taleh Ziyadov) 바쿠 국제 해양 대표이사는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네덜란드 물류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아제르바이잔의 지역 물류허브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음
 - 협력 증진을 통해 네덜란드 및 다른 유럽 물류 회사의 바쿠항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서명식에서 5월 초로 기획된 펜로-이스탄불-바쿠-중국 루트 컨테이너 테스트 운송에 관한 사전 협약 및 펜로에 바쿠항 대표사무소 설립 또한 합의되었음
 - 또한 펜로에서는 항만물류 전문가들의 사업 타당성을 비롯한 다각도의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때 폰티스 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s://denizxeber.az/2019/04/24/baki-limani-avropanin-aparici-logistika-qovsagi-il%C9%99-%C9%99m%C9%99kdasliga-baslayib/> 2019(검색일: 2019년 4월 24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주요 통계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주요 수출입품목 구조

(단위: 천 톤)

상품명	합계		해외		CIS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491,716.4	150,366.6	490,932.7	148,525.6	783.7	1,840.9
광물	2,928,397.1	25,841.3	2,881,962.5	17,725.3	46,434.6	8,116.1
연료 및 에너지	2,780,608	15,778	2,780,507.2	15,778	100.8	-
고무 및 화학 제품	9,104.2	99,235.4	8,714.4	97,879.4	389.9	1,356
원료, 모피 제품	79	3,635.1	70.9	3,547.8	8.1	87.3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49,744.8	12,037	148,547.3	11,767.4	1,197.5	269.5
섬유 및 신발	750.7	58,831.9	500.5	58,046.7	250.3	785.3
금속 및 금속 제품	82,353.7	90,831.1	82,148.9	89,771.7	204.8	1,059.5
기계류	20,275.1	459,001.1	18,615	458,022.7	1,660.1	978.4
기타	583,612	84,050.3	580,243.9	83,659.9	3,368.2	390.4
합계	4,266,033	983,829.8	4,211,736	968,946.5	54,297.0	14,883.4

참고자료 : http://dvtu.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id=350&Itemid=353 (검색일: 2019년 5월 6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